

멕시코 현대미술 작가 가브리엘 쿠리, 국내 첫 개인전

김정선 기자

송고시간 | 2015/06/04 15:52

(서울=연합뉴스) 김정선 기자 = 멕시코 출신 현대미술작가 가브리엘 쿠리(45)가 서울 종로 삼청로에 있는 국제갤러리에서 국내 첫 개인전을 열고 있다.

쿠리는 그간 벨기에, 독일, 노르웨이, 미국 등지에서 개인전을 열었고 현재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며 작품활동을 하고 있다.

4일 전시공간에서 만난 쿠리는 "나는 많은 사람이 일상에서 공통으로 느끼고 이해하는 것을 작품 소재로 사용한다"며 "이런것들을 통해 언어의 장벽을 넘어 조각의 언어로 한국에서 소통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작가는 서울에 머무는 동안 수집한 오브제를 작품 일부로 사용했다.

전시작 'Won Won'에는 1천원, 5천원, 1만원, 5만원짜리 한국 지폐가 대리석 사이에 꽂혀있고, 'Stock Stock'이라는 작품에는 대리석 교차부분에 종이컵이 박혀있다.

두 작품은 조각적 요소와 삶의 소비행태에 따른 '거래' 개념을 상징적으로 병렬해 둔 것이라고 갤러리는 설명했다.



가브리엘 쿠리 'Won Won'

앞서 자신을 조각가라고 밝힌 작가는 이들 작품 의도에 대한 질문에 "원래 용도와는 다르게 재료를 이용했을 때 그것에 더욱 눈길이 가지 않느냐"고 답했다.

전시작에는 돌, 벽돌, 슬리퍼, 알루미늄 롤 등을 활용한 그의 작품이 소개됐다.

국제갤러리는 "작가는 삶의 소비재가 상징하는 사회적이고 경제적 관점을 탐구하고, 상징적 오브제의 특징에 따라 조각 혹은 설치작품이 다양한 기술과 방식으로 구현되도록 한다"고 덧붙였다.

전시는 7월5일까지. ☎ 02-735-8449.

jsk@yna.co.kr

URL: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6/04/0200000000AKR20150604144400005.HTML?input=1195m>